

- 주요 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은행시스템의 안전성 강조, 은행권 불안은 지속
  - 미국 2월 뉴욕 연은 설문조사,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큰 폭 둔화
  - 유로그룹 의장, SVB 사태의 유로존 영향은 제한적, 관련 위험도 충분히 통제 가능
  - 중국 시진핑 주석,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이 중요, 리창 총리는 민간기업 지원을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과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주가 하락[-0.2%], 달러화 약세[-0.9%], 금리 하락[-1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일부 은행들에 대한 우려 증폭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금융주 중심으로 매도세 강화되며 2.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 약화 전망 등이 주요 요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1.4%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  
독일은 ECB 최종금리의 하향 조정 가능성 등으로 25bp 급락

※ 원/달러 1M NDF환율(1294원, -7.8원) 0.4% 하락, 한국 CDS 상승

| 주요지표 |        |         |         |        | 주요지표        |       |         |         |        |
|------|--------|---------|---------|--------|-------------|-------|---------|---------|--------|
|      |        | 3/13일   | 3/10일   | 전일대비   |             |       | 3/13일   | 3/10일   | 전일대비   |
| 주가   | 미국     | 3,855.8 | 3,861.6 | -0.15% | 국채금리<br>10y | 미국    | 3.57%   | 3.70%   | -13bp  |
|      | 유럽     | 442.80  | 453.76  | -2.42% |             | 독일    | 2.26%   | 2.51%   | -25bp  |
|      | 중국     | 3,268.7 | 3,230.1 | 1.20%  |             | 영국    | 3.37%   | 3.64%   | -27bp  |
|      | 일본     | 27,833  | 28,144  | -1.11% | CDS<br>5y   | 한국    | 44bp    | 43bp    | 1bp    |
|      | 한국     | 2,410.6 | 2,394.6 | 0.67%  |             | 중국    | 78bp    | 74bp    | 4bp    |
|      | 달러지수   | 103.62  | 104.58  | -0.92% | 위험지표        | EMBI+ | -       | 409     | -      |
| 유로화  | 1.0731 | 1.0643  | 0.83%   | VIX    |             | 26.52 | 24.80   | 6.94%   |        |
| 환율   | 엔화     | 133.21  | 135.03  | 1.37%  |             | WTI유  | 74.80   | 76.68   | -2.45% |
|      | 위안화    | 6.8483  | 6.9172  | 1.01%  | 원자재         | 구리    | 407.0   | 404.6   | 0.59%  |
|      | 원화     | 1,301.8 | 1,324.2 | 1.72%  |             | 금     | 1,913.7 | 1,868.3 | 2.43%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은행시스템의 안전성 강조. 은행권 불안은 지속

- 미국인들은 은행시스템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으며, 예금 역시 필요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다고 발언. 아울러 의회와 감독당국을 통해 은행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시민보호를 위해 은행 파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
- 다만 자본주의 원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은행주 투자 등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도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 이러한 발언은 일부 은행에 대한 불안을 조성
- 실제로 이날 지역은행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증폭되며 주가가 하락했고, KBW 지역은행지수는 전일비 7.7% 급락. 개별은행 가운데 First Republic(-61.8%), Western Alliance(-47.1%), PacWest Bankcorp(-21.1%) 등의 주가가 큰 폭 하락. BoA(-5.8%), Wells Fargo(-7.1%) 등의 대형은행 주가도 부진
- 온라인 증권사 Charles Schwab의 경우 신용잔고 및 전체 고객자산의 감소 소식 등으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큰 폭 하락(-11.6%). 회사 측은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최근의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가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미국 2월 뉴욕 연은 설문조사,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큰 폭 둔화

- 2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연율)이 4.2%를 나타내 '21년 5월 이후 최저. 3년 기대 인플레이션(연율) 역시 2.7%로 '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은행권 불안과 함께 연준의 금리인상 압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 ■ PIMCO, 3월 FOMC의 금리동결을 예상. BlackRock은 금리인상을 전망

- PIMCO의 Daniel Ivascyn 수석투자책임자는 최근의 은행권 불안이 단기에 종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이러한 변화를 정책결정에 참고할 것으로 분석. 반면 BlackRock은 은행권 문제로 금융여건이 크게 바뀌었으나 연준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

### ■ 연준, SVB의 파산 관련 조사를 진행. 결과는 5/1일까지 공개될 예정

- 마이클 바 부의장은 이번 사태 관련 완전한 상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 이를 통해 그 동안 SVB에 대한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

### ■ 유로그룹 의장, SVB 사태의 유로존 영향은 제한적. 관련 위험도 충분히 통제 가능

- 도나휴 의장은 유로존의 SVB 관련 익스포저는 크지 않다고 평가. 또한 매우 강력한 규제 등으로 위험을 큰 어려움 없이 통제할 수 있다고 진단. SVB는 기술기업과의 깊은 관계성이 문제의 원인인데, 역내 은행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고 설명

### ■ Moody's, 유럽 은행권은 채권투자 손실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전망

- 유럽 은행들이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투자 손실을 겪고 있으나 양호한 자금조달 구조, 안정적인 예금주 현황, 충분한 현금 보유 등으로 전반적인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

### ■ 중국 시진핑 주석,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이 중요. 리창 총리는 민간기업 지원을 강조

-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은 국가발전과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발언. 이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질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 또한 모든 인민이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
- 리창 총리는 기업의 권리와 민간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 한편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보다는 실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발언. 주택, 고용, 교육 등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슈가 중요하다고 설명

### ■ 일본 총리, 기업의 적극적인 임금인상이 중요. 의사소통을 강화할 방침

- 기시다 총리는 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노사 회의를 통해 각계의 참가자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전반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 특히 대기업 뿐 아니라 지방기업 및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 이벤트(3/14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만 위원 강연, 미국 2월 소비자물가
- 미국 2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 영국 ILO 1월 실업률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다양한 경로로 시장에 영향 - Financial Times

(History can instruct us on the fallout from SVB's collapse)

- SVB 파산 이후 은행들은 예금이탈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신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압력에 직면. 조달비용 상승과 함께 대출 확대도 꺼리게 되면서 은행권 순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될 전망
- SVB 사태는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 '80년대 연준은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 파산에 따라 긴축을 중단하고 6개월 동안 금리를 0.50%p 인하. 이번의 경우 연준은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거나 0.25%p 인상으로 속도 조절할 가능성
- 이 외에도 가상화폐 공급업체들은 SVB 사태를 참고하여 갑작스러운 현금 인출에 대비할 필요. 또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출범 계획 역시 지연될 가능성

### ■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개혁개방 시대의 종말을 예고 - 블룸버그

(Xi Jinping Brings China's Reform Era to an End)

- 40년전 덩샤오핑은 집단 지도체제 도입, 당정 분리, 민간기업 번영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계승했던 장쩌민 주석은 경제를 우선시했으며, 이는 WTO 가입으로 귀결
- 이와 달리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체제의 모델을 상당 부분 계승하면서 당정 일체화 및 금융·기술 기업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모색. 또한 경제에 위해가 되더라도 미국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견지
-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과거 마오쩌둥 체제에서 당원들이 모든 정부정책을 결정하던 방식이 대약진운동과 같은 재앙을 초래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

### ■ 일본 은행권, 미국 장기 채권을 다량 보유했으나 큰 위기는 없을 전망 - WSJ

(SVB Bust Won't Go Big in Japan)

- SVB 파산 이후 일부에서는 미국 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보유한 일본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 실제로 일부 은행은 최근 장기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의 미실현 손실에 직면
- 하지만 일본 은행들의 주요 예금주는 SVB의 경우(스타트업 혹은 벤처투자기업)와 달라 심각한 현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상황. 또한 보유자산 역시 그 동안 분산투자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SVB에 비해 매우 안정적

**■ 미국 금융당국의 SVB 해법, 도덕적 해이 위험을 초래할 소지 - Reuters**

(Experts flag moral hazard risk as U.S. intervenes in SVB crisis)

- 금융당국은 SVB 사태 해결을 위해 예금 전액 보호를 결정했고, 이에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구제금융에 가까우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부담
- 결과적으로 당국의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위험 회피의 중요성을 떨어뜨려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 아울러 모든 예금의 안전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은행의 존재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될 소지

**■ 미국 은행권 불안, 상업 부동산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 - 블룸버그**

(Banking's Next Threat? It Might Be Commercial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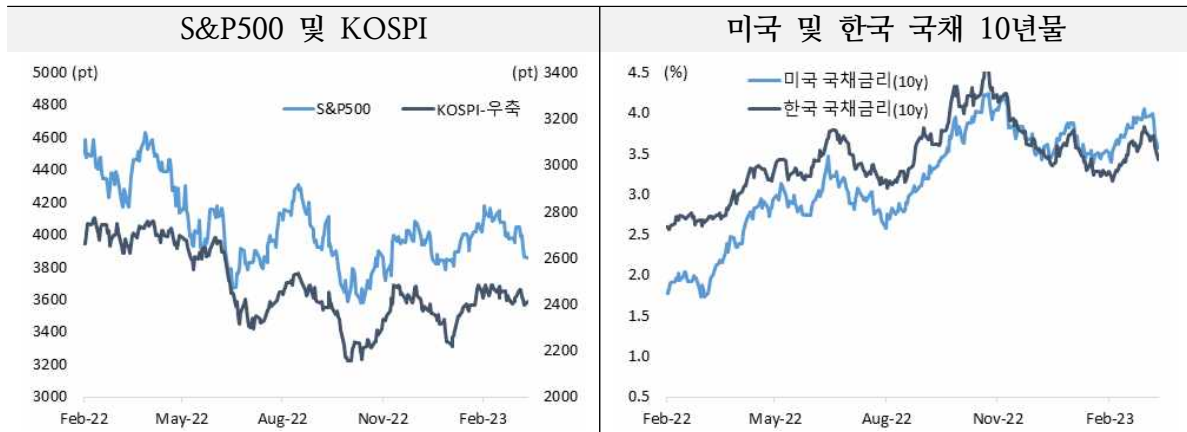
**■ 미국 투자자, SVB 사태로 은행의 효과적 분산투자 자산규모를 중시 - WSJ**

(Investors Are Searching for Safe Spaces in Banking)

**■ 감독당국, 은행권은 급격한 금리변동에 취약함을 기억할 필요 - Financial Times**

(SVB shows the perils of regulators fighting the last war)

##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